

재창조의 권능을 체험하다

교회 개척 이래 지금까지 34년간, 소경이 눈을 뜨는 등 국내외 수많은 성도가 시각 장애를 치료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감사의 마음

좋은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참된 삶의 의미를 찾아 구원과 강건함의 축복은 물론,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을 침노하게 하셨다.

‘십자가’에 담긴 의미

기독교의 상징인 나무 십자가에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섭리가 담겨 있다.

“건강과 평안, 주님의 선물입니다!”

뇌경색으로 인한 오른쪽 편마비를 치료받은 김영지 집사와 심각한 피부병을 치료받고 은혜를 사모하는 프랑스 필 보보 형제 간증.

만민뉴스

제755호 2016년 9월 11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소경이 눈을 뜨는 등 ‘시각 장애’ 치료 역사 크게 나타나



하나님께서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를 통해 재창조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시며 무수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그 가운데 소경이 눈을 뜨는 등 ‘시각 장애’ 치료 역사가 크게 나타나 국내외의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다. 지난 8월 초에 있었던 ‘만민 하계수련회’ 시에도 많은 사람이 치료받아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렸다(가운데 사진은 수련회 시 단을 가득 메운 간증자들과 해외성회 시 간증자들).

‘소경’이란 빛조차 느끼지 못하고 전혀 볼 수 없는 시각 장애인을 말한다. 성경에 보면 소경 거지 바디매오는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곧 보게 되었다(막 10장). 또 벳새다 지역에 살던 한 소경과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청년도 보지 못하던 눈이 밝아져 광명을 얻었다(막 8장, 요 9장).

약 이천 년 전, 예수님 당시에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예수님께서서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말씀하셨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개척 이래 지금까지 34년 동안 실명된 눈이 보이고 시력이 회복되는 등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무수히 보아왔다.

일례로 마리아 여세니아 로드리게즈 도밍게즈 자매(당시 12세)는 ‘2002 온두라스 연합대성회’ 기간 중 강사 당회장 이재록 목사가 인도한 라코세차교회 1일 부흥성회에 참석하여 두 살 때 열병으로 시력을 상실해 각막 이식수술을 하였으나 빛조차 볼 수 없었던 오른쪽 눈을 치료받아 볼 수 있게 되었다.

왼쪽 눈의 백내장 수술 후유증으로 심한 포도막염과 망막 완전 박리 현상이 생겨 안구위축증까지 진행돼 결국 왼쪽 눈을 실명한 박건위 형제(당시 15세)와 태어날 때 오른쪽 눈의 망막이 손상되어 병원에서 치료 불가 판

정을 받고 왼쪽 눈으로만 생활하던 허준 형제(당시 6세)도 이재록 목사의 기도로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케냐의 엘리자베스 나쿠미카 성도(당시 27세)는 11년 동안 맹인으로 힘겨운 삶을 살았으나 권능의 손수건 기도(행 19:11~12)를 받고 빛을 보기 시작하였고 사람과 사물도 볼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지난 8월 8일, ‘2016 만민 하계수련회’ 첫날 교육 후 은사집회 시에는 이러한 역사가 폭발적으로 나타났다.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통해 암을 비롯 뇌병변장애, 언어·청각·보행 장애 등 갖가지 질병은 물론 ‘눈’에 관련된 질병이 무수히 치료돼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렸다.

백내장을 앓다가 2012년 양안 수술을 받았음에도 오른쪽 눈이 잘 보이지 않아 2015년 재수술을 받은 박남순 집사(70세, 2대대 14교구)는 오른쪽 눈에 형체가 아른거려 기우뚱거리며 걷다가 넘어지곤 하였다. 그런데 올해 수련회에서 기도받을 때 시야가 환해지는 느낌을 받았고, 그 뒤 이런 증세가 사라졌으며 먼 거리의 사물도 잘 볼 수 있게 되었다(사진 1).

천정우 아동(12세, 마산만민성결교회)은 망막의 원뿔세포 이상이나 시각경로 이상으로 색깔을 정상적으로 구분하지 못하는 색약 판정을 받았는데, 기도받는 순간 단에 있는 불빛이 밝게 보였고 색약 테스트 결과, 치료받

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사진 2). 박명선 집사(78세, 창원만민교회)는 약 3년 전부터 오른쪽 눈이 침침하여 거의 보이지 않았고, 야맹증으로 밤에는 두 눈이 전혀 보이지 않아 외출을 할 수 없었다. 그런데 기도를 받은 뒤 오른쪽 눈이 선명하게 보였고, 야맹증도 치료받았다(사진 4).

이 외에도 박재업 집사(55세, 5가나안선교회)는 비문증을(사진 5), 배정희 권사(51세, 1대대 1교구)는 눈 알레르기과 가려움증을(사진 6), 이계태 성도(66세, 2대대 19교구)는 황반변성으로 두 차례 수술을 받은 뒤 시야가 흐린 증상을 치료받아 간증으로 영광 돌렸다(사진 7).

한편, 시력을 회복한 성도들의 간증도 무수히 많다. 시력이 계속 떨어져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올해 수련회를 준비했다는 김형모 집사(54세, 2대대 15교구)는 좌우 0.7, 0.5에서 양안 시력이 1.0으로 좋아졌다(사진 8).

송이희 집사(58세, 3대대 28교구)는 노안을 치료받아 돌보기 없이 성경을 볼 수 있게 되었고(사진 9), 이아란 권사(49세, 1대대 5교구)는 난시를(사진 10), 양정례 집사(73세, 3대대 31교구)는 근시를 치료받아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되는 등(사진 11) 시력을 회복한 간증이 WCDN(세계기독교사네트워크)에 계속 접수되고 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내가 여호와와 의를 따라 감사함이여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시편 7:17)

감사의 마음

음을 들은 후 참된 삶의 의미를 찾고 구원 받은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왜 태어나고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압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의 하나님 보좌 앞에 이르기 위해 하나님 형상을 되찾아가는 시간들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까지 천국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충성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서는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먹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해나가는 것이지요. 이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니 하루하루가 얼마나 복되고 즐겁겠습니까? 구원받은 은혜를 떠올리면 기쁨이 넘치지요.

죄를 버리며 변화되어가는 만큼 성령의 감동함 속에 행복이 넘칩니다. 영으로, 온 영으로 들어갈수록 강물같이 솟아나는 즐거움 속에 살아가지요. 장차 천국에서는 이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행복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더욱 진한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셨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를 행하는 사람, 곧 진리 안에 거하면서 날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면 영적인 빛으로 둘러 주시므로 질병이 틈탈 수 없습니다. 이미 있던 질병 균도 태워지지요.

예전에는 몸이 연약해서 쉽게 지치고 힘이 없어 툭하면 넘어지던 분들도 교회에 다니면서 충성하고 봉사하다 보니 어느새 강건해졌다는 간증이 얼마나 많습니까? 강건해지니 사명 감당도 전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천국 소망도 더해지지요. 혹시 질병이 틈탔다 해도 즉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여 죄의 담을 헐면 됩니다. 또 회개할 것이 없다면 더욱 감사하고 기뻐하면 되지요.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내보이면 어떤 중한 질병이나 연약함도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하시는 여호와께서 책임지고 고쳐 주십니다. 더구나 이제 단에는 권능의 역사로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것이 더 수월하지요. 그리하여 질병만이 아니라 어떤 인생의 문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이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의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참된 행복만 주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3. 가장 좋은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의 소망을 주심에 감사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셨으니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얻었으면 그다음에는 천국을 침노해 들어가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까지 부지런히 침노해 들어가야 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침노하면 될까요? 행함으로 짓는 죄는 물론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도 벗어

버려야 합니다. 결국은 마음에 있는 죄성까지도 뽑아내고 성결을 이루어야 하지요. 또한 온 집에 충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어도 이런 영적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천국을 침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새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지요. 낙원(눅 23:43)이나 셋째 하늘(고후 12:2), 새 예루살렘(계 21:2) 같은 표현들이 나와도 ‘다 똑같은 천국을 말하는 것이겠지.’ 하며 막연하게 짐작할 뿐입니다. 죄성을 뽑고 성결된다는 개념조차 없으니 성결을 이루고자 노력할 수도 없지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설교를 통해 천국의 분류에 대해 알 뿐만 아니라 천국 생활도 압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지 세세하게 알고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알려 주어도 여전히 그 길로 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기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에게 99% 공의를 채우게 하셨고, 신뢰와 사랑으로 하나 된 분들이라면 나머지 1% 공의만 채우면 갈 수 있게 하셨지요.

비유 들어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 성 천국 잔치의 초대장을 보내시면서 그 길을 자세히 알려 주는 지도까지 보내 주시고, 그래도 못 오는 사람이 있을까봐 이제는 자동차까지 보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더욱 기쁨과 감사로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했습니다. 독생자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항상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빛 가운데 행하면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야 할 감사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1. 참된 삶의 의미를 찾고 구원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

많은 사람이 참된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해 세상의 헛된 것을 좇아갑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조차 주일예배에 참석하는 것 외에는 세상 사람과 다름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부귀와 명예, 권세, 지식 등 조금이라도 더 많이 누리는 것을 목표 삼아 살아갑니다.

남보다 적게 누리는 것 같으면 마치 실패한 인생처럼 스스로를 비참하게 여기며 좌절하고 낙심하지요. 남부럽지 않은 부귀영화를 누리면서도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지 못해 더욱 세상 정욕을 좇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라는 허무함 속에서 스스로 생명을 버리기도 합니다. 마치 망망한 바다 한가운데서 나침반이 고장 난 배와 같이 표류하는 모습들이지요. 하지만 복

2. 영육 간에 강건하게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심에 감사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영육 간에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 이 땅에서는 고통스럽게 살라.” 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요한삼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신 대로 참된 행복을 위해 영혼이 잘되는 방법을 끊임없이 알려 주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와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월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는행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십자가’가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나무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섭리가 담겨 있기 까닭이다. 십자가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바로 알고 정립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참 자녀가 되기를 바란다.

첫째 • ‘축복’을 의미한다

고대 제국에서 십자가 처형은 흉악범이나 반역자와 같이 용서 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범인에게 내려지는 끔찍한 형벌이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죄인들을 대신해 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것이다(갈 3:13).

‘율법의 저주’란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영계의 법에 의한 저주를 뜻한다(롬 6:23).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 스스로 죄를 지으며 살았다. 첫 사람 아담이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자 그의 혈통을 이어받은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 죄의 값인 사망의 길로 가게 된 것이다.

그런데 죄인 된 인류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키려면 누군가가 대신 저주의 값을 치러야 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저주의 상징인 나무 십자가에 달리도록 내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온 니고데모에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이다(요 3:14-15).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서 원수 마귀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다. 원수 마귀 사단은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게 하여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영계의 법을 스스로 어겼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이다. 따라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의미는 원수 마귀 사단의 사망 권세가 깨어진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으니 주를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저주의 상징이 아닌 ‘축복’을 의미한다.

둘째 • ‘희생’을 의미한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말씀하고 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에(히 9:22) 예수님께서 친히 피 흘려주심으로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희생의 값을 치러주신 것이다.

십자가 형벌은 먼저 채찍으로 몸을 가혹하는데, 채찍에는 쇠구슬, 날카로운 뼈조각, 쇠조각 등이 박혀 있다. 채찍에 맞으면 깊은 타박상과 함께 살이 벌어지거나 찢겨져 나가고, 피부 밑의 골격 근육까지 찢어지면 살은 힘없이 매달려 있게 된다. 많은 피를 흘리기에 혈액이 떨어져 정신이 몽롱해지거나 기절하고, 심한 목마름을 느낀다.

이렇게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길이 2미터, 무게 40킬로그램 가량인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에 도착하면, 십자가에 몸을 고정하기 위

해 손목과 발등에 약 13~18센티미터 정도의 굵직한 큰 못으로 손목 정중앙을 박고, 두 발을 위아래로 겹쳐서 발등 중앙의 둘째와 셋째 뼈 사이에 못을 박아 신경은 완전히 파괴된다.

손발이 못 박힌 채 수직으로 매달려 있으면 팔이 늘어지고 모든 뼈가 어그러진다. 몸무게에 따라 팔이 처지고 어깨뼈들이 어그러져 양쪽 어깨는 탈골이 된다. 산소 공급이 안 돼 숨쉬기가 어려워지니 혈액은 이산화탄소 과잉으로 산성이 증가되고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면서 기절하고 깨어나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죽음에 이른다.

십자가 처형은 인간이 겪는 고통 중에 최악의 고통을 느끼게 하는 사형법이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뼈저리게 느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낌 없이 내어주신 사랑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다.

셋째 • ‘사랑’을 의미한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지은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십자가의 처형을 받게 하셨다는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받으실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클지를 아셨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감행하셨다. 죄인 된 인생들을 구원할 길은 이 길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원수 마귀 사단은 상상조차 못한 방법이었다. 예수님께서도 공의를 초월하는 희생적인 사랑으로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독생자 예수님을 그토록 처참한 죽음에 내어주실 만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되새겨야 한다. 이 사랑을 마음으로 느낀 사람은 그때부터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달라진다.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좇아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것이다.

주요 프로그램 안내

2016. 9.11~ 9.17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 날마다 새롭게
- 사랑장 7-11
- 공간과 차원 5
- 1차 영혼육 1-4
- 육체의 결여 2-7
- 공부질하는 비결 1
- 요한계시록 강해 45-54
- 신뢰
- 선 5-9
- 천국 1-6
- 전도 1-2

GCN TV설교

- 간절함(이수진 목사)
- 비진리에 속한 혼의 작용들(이미영 목사)
- 공은 마음 2(이미경 목사)
- 영의 세계 54(이희선 목사)
- 믿음의 분량 8(신동초 목사)
- 열 재앙 2(정구영 목사)
-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임학영 목사)

예능 프로그램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다시해보) 18
- 알콩달콩 어여쁜 울동 63
- 내 마음의 찬양 35
- 창조와 과학 3
- 모두 드려요 55
- English 3

해외성회 및 신규 프로그램

- 권능 스페셜 1
- 말씀 스페셜 1
- 페루 연합대성회 2
- 믿음으로 걸은 길 29
- 회상(시즈리) 10

GCN HD 채널
kt alletv 882번

“편안하게 호흡하고 자유롭게 걷는 것이 꿈만 같습니다”

김영지 집사 (64세, 3대대 30교구)

오래 전부터 저는 심장 부정맥이 있었는데 2016년 2월 26일(금), 잠시 누웠다가 일어나려는 순간 오른쪽에 마비가 왔습니다. 감각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어서 왼손으로 휴대폰에 저장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환자기도를 받으며 작은 딸에게 전화를 걸어 제 상황을 알렸습니다.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진 저는 뇌경색 판정을 받아 중환자실에 있게 되었고, 작은 딸은 구역 식구들에게 연락해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저는 병실에서 당회장님의 환자기도를 계속 받으며 하나님 앞에 합하지 못했던 모습을 돌아보니 섬기지 못하고 판단한 일 등이 떠올라 회개하였지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의사가 “오른손을 올려보세요.” 하는데 올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감사했고, 다행히 일반실로 옮길 수 있었지요. 하지만 아직은 딸의 도움이 없이는 먹을 수도, 씻을 수도, 화장실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이틀 후인 29일(월) ‘2회 연속 특별 다니엘철야 기도회’ 첫날, 저는 병실에서 GCN방송(www.gcntv.org)을 통해 당회장님의 축복기도를 받았습니다. 그 뒤 놀랄 정도로 급속히 회복되어 일주일 만에 퇴원할 수 있었지요.

3월 20일(주일), 저는 지팡이를 짚고라도 혼자서 걸을 수 있음이 너무 감사해서 여선교회 헌신예배를 마음 다해 준비하였습니다. 그날 당회장님과 악수를 하는 순간, 오른쪽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느껴졌지요. 그리고 비록 지팡이를 의지해야 했지만 걷는 것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4월 10일 주일 새벽, 꿈에 당회장님께서 나타나 두 눈에 눈물을 가득 머금은 채 제 손을 잡아주시며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에서 깬 뒤 일어나 보니 다리에 힘이 더욱 주어졌고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었지요. 할렐루야!

하루 금식을 한 후 5월 26일(목), 당회장님 생신예배에 참석하였는데 단에 오르시는 당회장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며 심장이 지글지글 불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배가 마쳐진 후에야 그 느낌이 사라졌지요. 그 뒤 맥박도 힘 있게 뛰고 몸에 더욱 힘이 주어져 이전에는 계단을 오르려면 숨이 차서 몇 번씩 쉬어 가야 했는데, 숨이 차는 증상 없이 단번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지난 8월 초 ‘2016 만민 하계수련회’ 첫날 은사집회 때 당회장님 기도를 받은 뒤에는 비문증(눈앞에 먼지나 벌레 같은 뭔가가 떠다니는 증상)이 사라졌지요. 또 시력까지 회복되어 전에는 돋보기로도 작은 글씨를 볼 수 없었는데, 지금은 돋보기 없이 작은 글씨까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믿음을 더해 주시고 섬세하신 사랑으로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15년 된 피부병의 고통에서 벗어나니 평안과 행복이 넘쳐요”

필 보보 형제 (25세, 일드프랑스만민교회)

저는 여덟 살 때부터 15년 동안 아토피의 일종인 피부병을 심하게 앓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완치 가능성이 없다며, 다만 코르티손(호르몬의 일종)을 투여해 고통을 줄여줄 뿐이었습니다. 심할 때에는 음식을 먹을 수도, 걸을 수도, 잠을 잘 수도, 공부에 집중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질병과의 오랜 싸움에도 전혀 내색하지 않고 지내니 사람들은 제 고통을 몰랐지요. 오로지 가족의 도움과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며 학업에 그저 최선을 다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프랑스에서 평생에 단 한 번 응시 자격이 주어지며 소수의 엘리트들만이 들어가는 그랑제콜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셨습니다. 3년간은 대기업에서 인턴사원으로 근무하며 장학금을 받고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가 2012년 직장 동료의 소개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신 후 큰 은혜를 받으시고 제게도 들어볼 것을 권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인터넷을 통해 만민중앙교회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요.

2014년 5월, 이희선 목사님(만민 전 지교회 총지도교사)이 벨기에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과 함께 집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질병을 치료받기를 사모하며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를 받았지요. 그리고 바로 약을 끊었는데 한 주 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두꺼운 딱지들이 저절로 떨어지더니 피부가 재생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약을 복용해도 경험해 보지 못한 꿈같은 일이었지요. 사람이나 의학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그해 6월 말, 부모님과 함께 만민중앙교회를 방문해 당회장님께 감사인사를 드리고 직접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권능의 무안단물터에서 침수를 했는데 피부는 더 좋아지고 미끈해졌지요. 시간이 갈수록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상처의 흔적들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2016년 7월 말에는 휴가를 내어 어머니와 함께 만민중앙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사진). 각종 예배와 다니엘철야 기도회 등에 참석하며 영적으로 충만함을 얻고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의 소망으로 행복해져서 돌아왔지요.

성결을 강조하는 생명의 말씀과 기도 생활은 제 영혼의 참된 기쁨과 소망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귀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당회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자취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명3길 11 ☎033)641-3790, 010-6334-7750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054)748-5777, 010-3747-57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055)322-7055, 010-6605-2254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상남로 50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4182-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9978-2428
- 새창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3 (구남지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동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변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를 진달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왕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동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효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3330-317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탈로 95 ☎010-6355-1928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3049-207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종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2208-5719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빌D ☎031)905-2419, 010-2276-101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